

투데이 칼럼

한국 국가부채의 현황과 전망, 일본·그리스 사례와 비교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54.3%로 추정되며, 총액은 약 736조 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부채는 한 나라의 경제 체질과 정책 운용 능력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국가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나 사회투자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 보건, 인프라 등 장기적 성장 기반에 투입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누적된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둔화, 금융시장 불안정, 정책 운용의 제약 등 심각한 구조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국제적 비교에서 일본과 그리스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무려 236.6%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내국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 금융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



오 상 군
본보 경제부장

리 정책과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이자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부채가 곧 위기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깊은 그림자를 안고 있어, 단순한 채무 규모만으로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반면 그리스는 GDP 대비 190.6%의 국가부채를 가진 채 외채 의존도가 높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와 EU의 긴축정책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면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공공지출의 급격한 축소, 세금 부담의 급증, 실업률 상승,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긴장은 그리스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넣었다.

그리스 사례는 국가부채의 구성과 국제 금융 환경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천차만별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순한 부채 비율만으로는 경제 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외채 비

중, 금리, 정책 운용 능력 등 다각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는 일본과 유사하게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이 내국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금리 상승 압력과 장기적 복지 지출 증가, 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은 부채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민간투자 유입이 제한되며,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 운용의 유연성이 점차 줄어들어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외채 의존도가 증가하면, 그리스 사례와 유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

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시에 외채 비중과 금리 상승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부채는 필연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지만, 적절히 운용될 경우 경기 안정과 사회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리가 소홀하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는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장기 구조적 요인과 국제 금융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본과 그리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부채 구성, 운용 방식, 외부 충격 대응 능력이 경제적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부채의 질적 특성과 장기적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안정적 단기 운용과 구조적 장기 대비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의 재정 정책 결정과 경제 구조 조정이 한국의 국가부채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사설

일상 생활용품의 교체 주기

생활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생활용품 중 황색 포도상 구균(식중독 균)이 두 번째로 많이 발견 된 것이 수세미다.

수세미는 주방에서 가장 물기가 많은 물건 중 하나다. 습한 환경 때문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며,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스며들어 세균이 쉽게 번식한다.

수세미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오래된 수세미는 오히려 오염 물을 퍼뜨릴 수 있으며 세척력도 떨어진다. 평소엔 뜨거운 물로 소독해주거나, 전자레인지로 이용해 살균 작업을 해주면 좋다.

또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사용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 완전히 건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베개는 1~2년에 한 번

교체 해주는 것이 좋다. 수면 중 배출되는 각종 땀, 피지, 각질 등이 흡수되어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또한 머리와 목을 받쳐주는 것이 중요한 베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무너지고, 목을 올바르게 지지하지 못해 목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치솔 역시 마찬가지로 물기에 젖어 있어 세균 번식이 쉬운 곳이다.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우며, 마모된 칫솔모는 오히려 치아를 깨끗하게 닦지 못하고 잇몸을 손상시키기 쉽다.

몸과 직접 닿는 수건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수건은 물기를 제대로 흡수 하지 못하며, 각종 노폐물이 쌓여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쉽다.

수건은 1~2년에 한 번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다. 또한 수건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인촌 전 장관 동생 유경춘 주교 별세

최근 고(故) 유경춘 주교 장례미사가 있었다. 유 주교는 지난해 1월 담도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족과 사제 등이 임종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선종했다.

유경춘 주교의 장례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형 유인촌 전 장관이 동생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이날 장례미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한 주교들과 사제,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분은 교회가 사회의 아픔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사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언하셨다”며 추모했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주교는 서울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1월 서울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독실 프랑크푸르트 상트게오르겐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교구 목5동 본당 보좌 신부, 가톨릭대학교(대신학교) 교수,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명일동 본당 주임신부,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등을 지냈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주교품을 받아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겸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로 활동했다.

교인은 담도암 투병 중에도 굳건한 신앙심을 잃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병마와 싸웠다. 그의 별세는 한국 천주교계에 큰 슬픔을 안겼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헌신으로 더욱 빛났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찰리 커크 충격에 혼비백산한 관객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던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10일(현지 시간) 유타주 오웬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중 충격을 당하자, 관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커크는 이날 연설 도중 충격을 받아 숨졌다.

‘혁명’ 외치는 프랑스 ‘모든 것을 막아라’ 시위대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국가 마비 운동인 ‘모든 것을 막아라’(Block Everything) 시위대가 ‘혁명’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